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 2021. 12.

국립국어원 2021. 12.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2021. 12.

“국민의 국어능력을 높이겠습니다.”

국립국어원 장소원 원장

실전 국어 표기법(1)

손자가 할머니께 드리는 선물-‘드리다’와 ‘들이다’

국어원 30년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다

국어원 소식(1)

‘리걸테크’는 ‘법률 정보 기술’로

우리말 다듬기(1)

감염병 세계적 유행으로 달라진 우리의 일상

100년 전 우리말 풍경

100년 전 해외에서 발행된 한글 신문

실전 국어 표기법(2)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안치다’와 ‘앓히다’

읽기 좋은 글, 듣기 좋은 말
이기적인 공감은 없다

사전 두 배로 즐기기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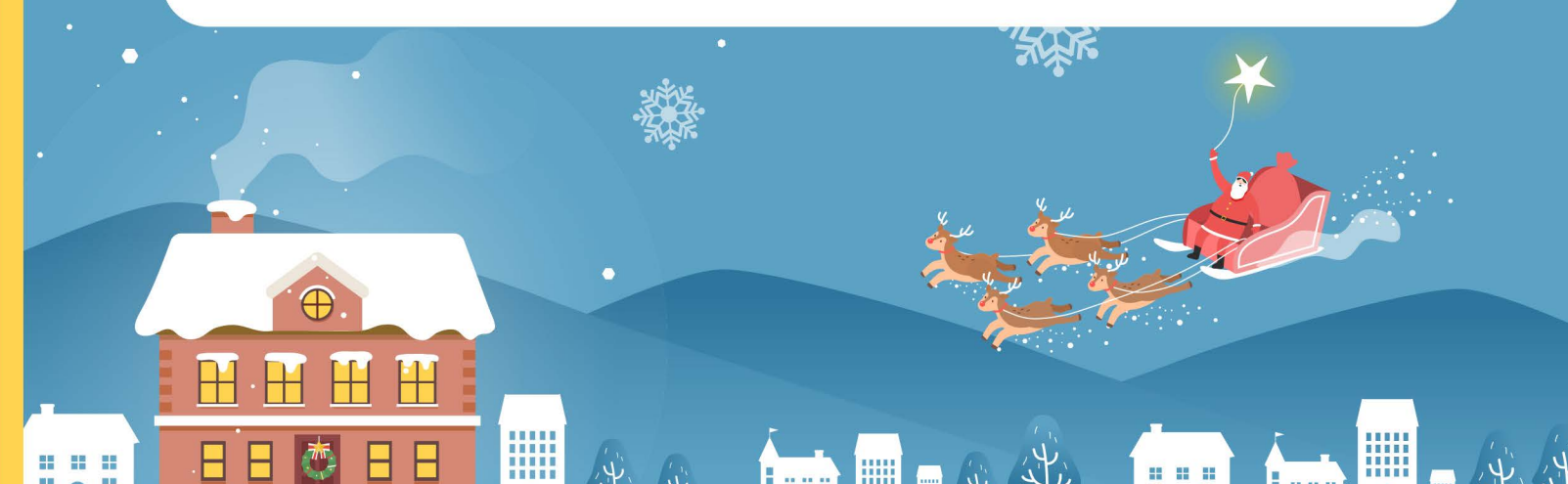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과 <한국어-외국어학습사전>

국어원 소식(2)

소강춘 전주대 교수(전 국립국어원장) 국립국어원에 개인 소장 자료 기증

우리말 다듬기(2)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그 후 2년



목차

쉽표, 마침표. | 2021. 12.

국어 배우기

- 2 실전 국어 표기법 손자가 할머니께 드리는 선물 ‘드리다’와 ‘들이다’
- 4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 ‘안치다’와 ‘앓히다’
- 6 읽기 좋은글, 듣기 좋은말 이기적인 공감은 없다
- 10 사전 두 배로 즐기기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전

국어 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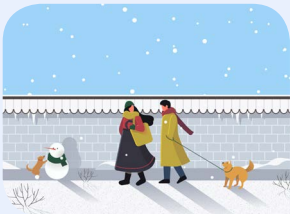
- 16 국어원 30년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다
- 20 국어원 소식 ‘리걸테크’는 ‘법률 정보 기술’로
- 22 국소강춘 전주대 교수(전 국립국어원장) 국립국어원에 개인 소장 자료 기증
- 24 우리말 다듬기 감염병 세계적 유행으로 달라진 우리의 일상
- 26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그 후 2년

국어로 바라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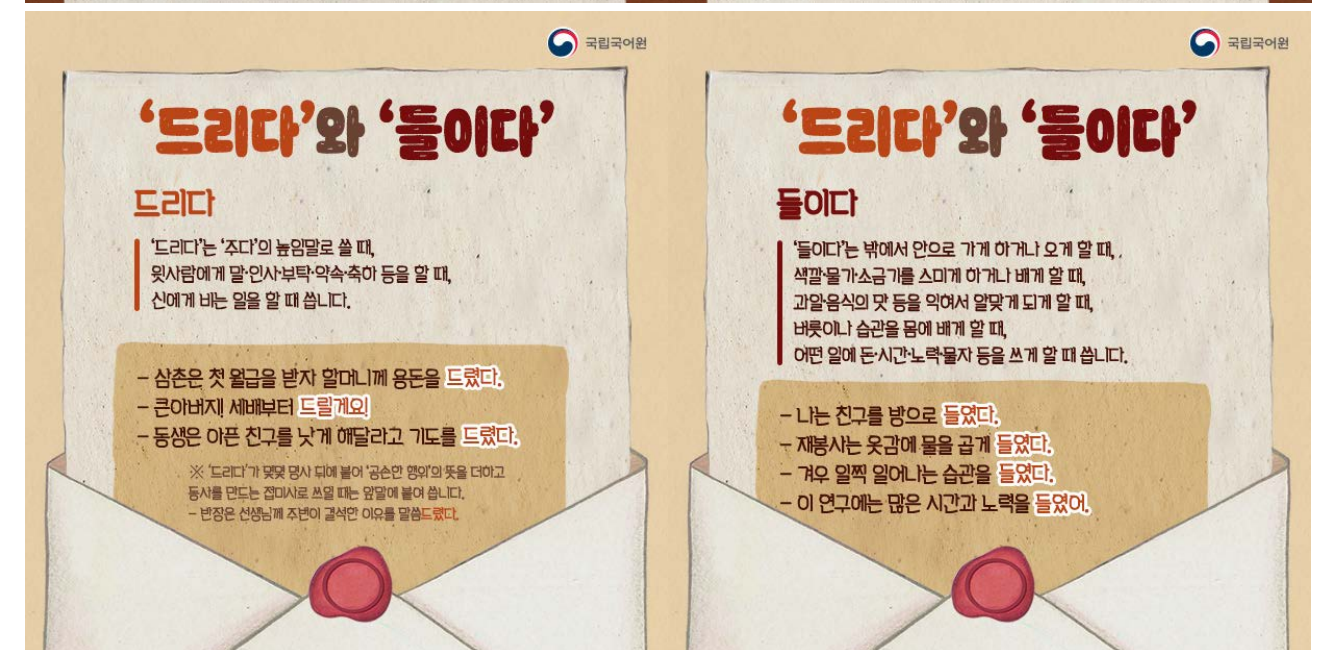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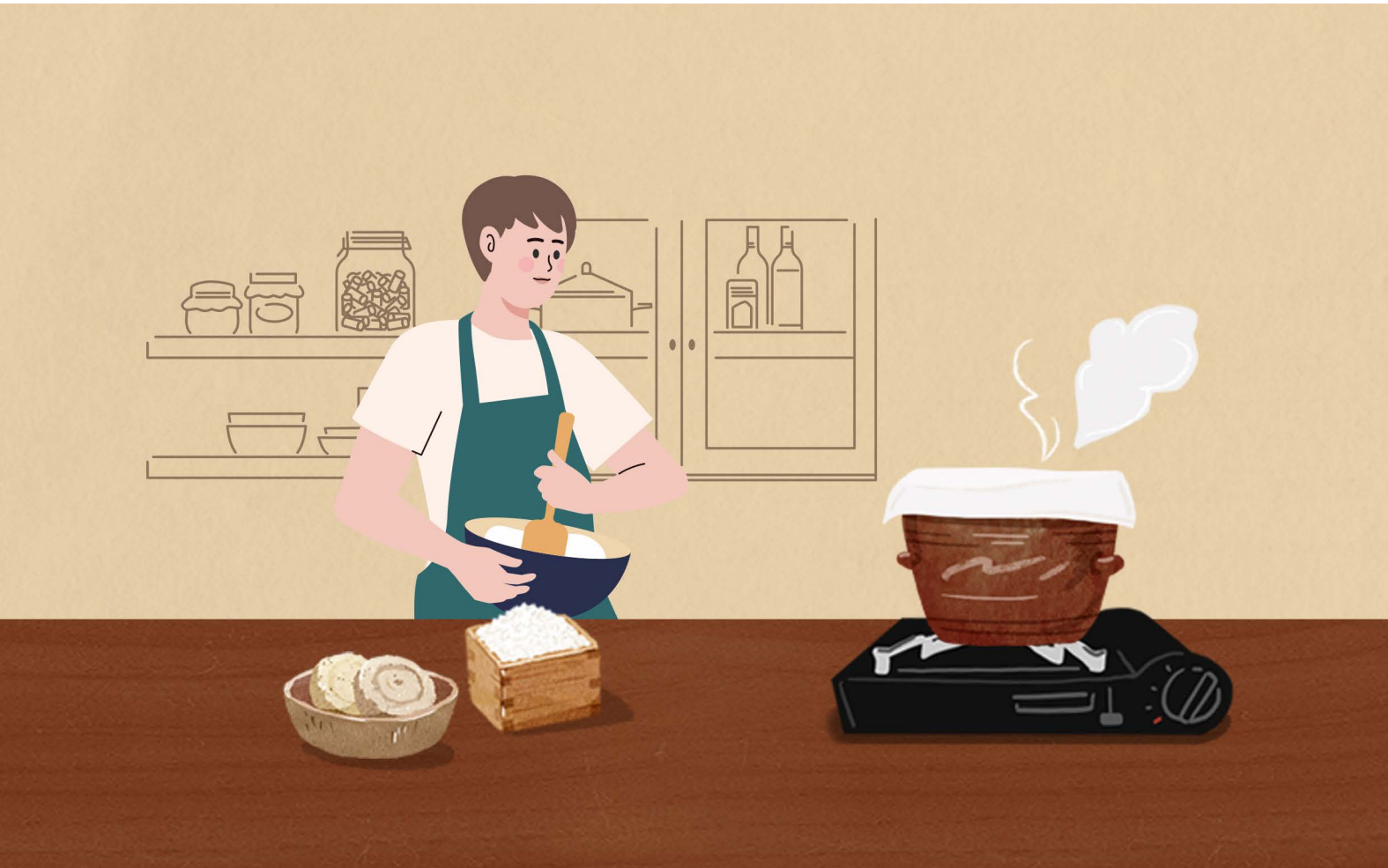
- 28 100년 전 우리말 풍경 100년 전 해외에서 발행된 한글 신문
- 34 우리말, 그리고 사람 국민의 국어능력을 높여겠습니다. 국립국어원 장소원 원장

국어로 함께하기

- 42 우리말 풀기 독자 참여 행사
- 46 우리말 풀기 독자 참여 행사



손자가 할머니께 드리는 선물 '드리다'와 '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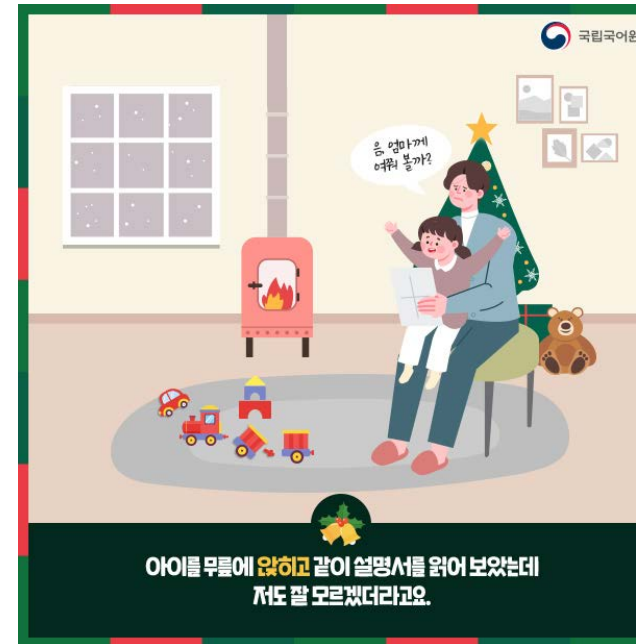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 ‘안치다’와 ‘앓히다’



쌀을 **안치고** 있는데 아이가 저를 다급하게 불러요.



거실에 모형 기차길을 **앓히려**는데
조립이 어렵대요.



아이를 무릎에 **앓히고** 같이 설명서를 읽어 보았는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제다 보니 저 대신 쌀을 **안치던** 아내에게
떠넘기게 됐네요.

‘안치다’와 ‘앓히다’

안치다

‘안치다’는 숯이나 냄비에 재료를 넣고 조리할 때,
어려운 일이 앞에 닥칠 때,
무엇이 앞으로 와 닥칠 때 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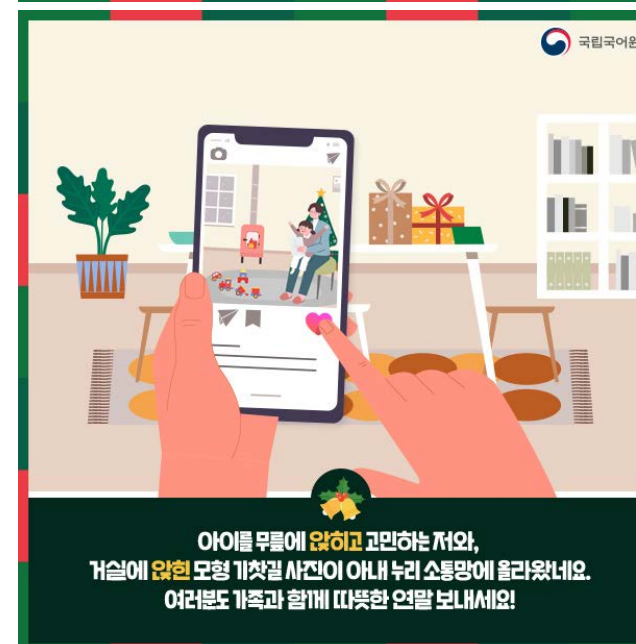
- 아빠는 시루에 떡을 **안쳤다**.
- 그때는 당장 눈앞에 **안친** 일이 너무 많아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
- 밤바람이 선뜩하게 얼굴에 **안쳤다**.

‘안치다’와 ‘앓히다’

앓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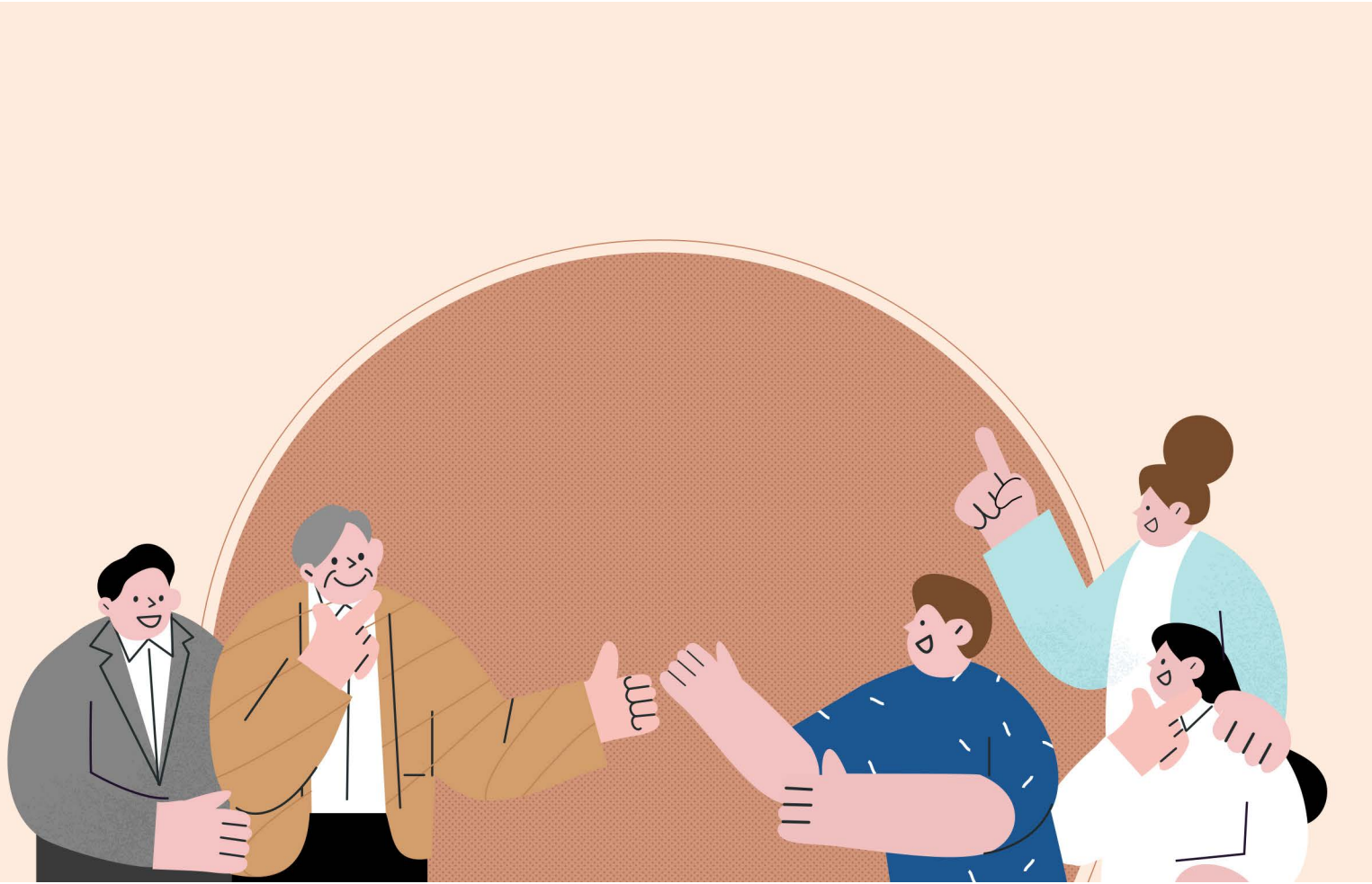
‘앓히다’는 ‘앓다’의 사동사로 쓰일 때,
무엇을 올려놓거나 설치할 때,
문서에 어떤 줄거리를 따로 적어 놓을 때,
버릇을 가르칠 때 씁니다.

- 할아버지는 동생을 무릎에 **앓히셨다**.
- 사장은 가게 앞에 자판기를 **앓혔다**.
- 형은 책을 읽다가 중요한 것을 여백에
앓히는 습관이 있었다.
- 이모는 동생에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앓히셨다**.



아이를 무릎에 **앓히고** 고민하는 저와,
거실에 **앓힌** 모형 기차길 사진이 아내 누리 소통방에 올라왔네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이기적인 공감은 없다



글: 이미향(영남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학교서 돌아오는 아이가 가방을 끌고 들어오며 “엄마, 나 좀 설게요.”란 말을 툭 던지더니 제 방으로 들어간다. 아이 말에 엄마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혹은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당사자로서 어떤 답을 들어 봤는가? 이 상황에서 엄마가 하였을직한 말을 딱 5초만 생각해 보고 가자.

‘나 좀 설게요.’에 대한 엄마의 대답으로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무슨 일인데?, 무슨 일 있니? 말 좀 해 봐.’와 같은 유형이다. 흔히 캐묻기라고 한다. 캐묻는 말을 들은 아이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이다. 속으로는 ‘뭘 그리 알고 싶으신가요? 그래도 지금은 좀 참으시죠. 제가 좀 힘들거든요.’와 같이 말하고 있지 않겠는가?

한국 사회에서 좀 더 현실적인 다른 반응도 있었다. ‘쉬다니? 학원 가야지.’, ‘저 또 하기 싫어 저런다. 숙제는 안 할 거니? 그러다가 너 뭐 될래?’와 같은 다그침이 있다. 경고와 훈계 유형이다. ‘나 좀 설게요.’라며 자기 의사를 먼저 말하는 아이라면 적어도 부모와 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아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계가 시작되면 ‘또, 또 저러신다.’고 하는 혼잣말이 마음에서 꿈틀거리면서 다음에는 소통의 시도조차 접을지도 모르겠다.

또 다른 응답 유형을 소개해 보자. ‘그러니까 어제 일찍 자라 그랬지? 안 자고 꾸물거릴 때 내가 알아봤다.’는 분석과 충고형이 있다. 아무리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싶더라도, 부모의 분석 대상이 되고 싶은 아이는 없을 것이다. 두려운 사실은 이런 말을 듣는 아이도 머지않아 부모의 언행을 분석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요? 지난번에 엄마는 어땠는데요? 엄마도 그랬잖아요.’와 같은 말이 나와도 부모는 할 말이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감정을 이입하면 문제가 커진다. ‘아이고, 그렇구나.’, ‘불쌍해라. 얼마나 학교서 힘들었으면...’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학생들도 많았다. 동정형이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더 갑갑해진다고 한다. 단지 쉬겠다고 했을 뿐인데 너무 앞서 나가시면 말문이 막힌다는 것이다.

이 응답들은 ‘사고방식과 표현’에 대한 수업에서 대학생들이 털어놓은 경험이었다. 캐묻기형 부모는 단지 궁금해서 물었을 뿐이고, 경고와 훈계형에서는 미래를 알려줬을 뿐일까? 아이에 대한 관심 때문에 아이를 분석했고, 한없는 사랑으로 동정한 것뿐인데 그것이 죄냐고 되물을 것인가? 모두 듣는 사람 처지를 앞세운 어설픈 합리화이다. 이처럼 이기적인 방어는 말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공감은 남의 감정이나 의견에 대해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기분이다. 만약 누군가의 견해에 같은 생각을 가진다면 그 생각에 동감한다고 한다. 캐묻거나 훈계하는 것, 분석하고 동정하는 것은 분명 공감아 아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를 생각하기보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결과를 단정 짓느라 정작 아이의 말에는 집중하지 못했다.

‘라떼는 말이야.(나 때는 말이야.)’란 분위기를 모르고 자기 경험담을 늘어놓는 인생 선배를 비꼬는 유행어이다. 이제는 ‘라떼’라고만 해도 웬만큼 알아들을 만큼, 이 사회는 공감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 말은 비단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나 중심 말하기, 이기적인 말하기’에도 소통의 귀는 닫힌다. 듣고 싶은 말이란 자기 행동에 필요한 말, 대화 목적이 뚜렷한 말,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말, 칭찬해 주는 말 등이라는 대중의 응답이 있다. 딱 잘라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말이 들어갈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다. 아직 교통경찰도 도착하기 전이라 현장은 처참했다. 차바퀴로 다친 사람 곁을 지나가기조차 죄스러운 상황이었다. 지인들에게 금방 사고 난 현장을 거쳐 왔다고 했더니 ‘왜 사고가 났대?’, ‘사람은 얼마나 다쳤어?’와 같은 질문이 쏟아졌다. 혹은 ‘나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라며 유사한 경험담을 늘어놓았다. 그날 어른들 대부분의 대화는 그렇게 흘러갔다. 퇴근을 하여 어린 아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전했다. ‘오늘 엄마가 출근하는데…’로 시작한 이야기 끝에 어린아이가 한 말은 “엄마 참 무서웠겠다.”였다. 아이는 당시의 엄마 마음을 알아주었다. 종일 놀랐던 마음이 비로소 진정되는 느낌이 들었다. 공감이란 누군가가 그저 그 사람의 처지에서 말해 주는 것이다. 아직은 엄마가 전부인 어린 아들이었기에 다른 정보보다 엄마 마음에 몰입해 준 것이 아닐까 한다.

정보 중심 사회가 되면서 듣기의 문턱이 더 높아졌다. 공감과 경청이 화두인 것은 그것을 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감과 경청이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나의 관계를 지키려면 꼭 배워야 하는 삶의 기술이 분명하다.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전

국립국어원<한국어기초사전>과 <한국어-외국어학습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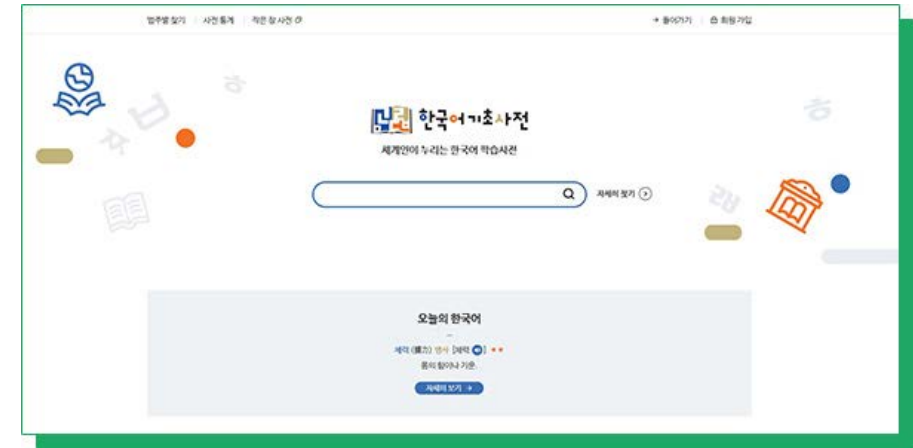


글: 이윤미(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포털에서 ‘한류’를 검색해 보면 1990년부터 기사에 쓰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처럼 ‘한류’라는 말을 진정으로 실감하는 때가 있었나 싶다. 전 세계에는 지금 ‘방탄소년단(BTS)’, ‘오징어 게임’ 등으로 그야말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올해 9월에는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OED)에 ‘오빠(oppa)’, ‘언니(unni)’, ‘먹방(mukbang)’, ‘치맥(chimaek)’, ‘대박(daebak)’ 등 26개 한국어 단어가 새로 등재되기도 했다. 이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처음 편찬된 이후 올해 8월까지 등재된 한국어 기원 단어보다 많은 수이다.

이렇게 한국 대중문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이 많아질수록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한국어 학습자도 늘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러한 한국어 학습자가 쉽게 한국어를 배우고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한국어 학습사전인 <한국어기초사전>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기초사전>은 2012년에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고 2016년에 정식으로 개통하였다. <한국어기초사전>에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전으로서 한국어를 공부할 때 기본이 되는 5만여 개의 어휘에 다양한 학습 정보를 담았다.



▲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기초사전>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첫째,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학습자들을 위해 뜻을 쉽게 하였다. 예를 들어 ‘열매’의 뜻을 <표준국어대사전>의 것과 비교해 보자.

열매 ★★

발음 [열매 ㄹ매]

품사 「명사」

1. 사과, 배 등과 같이 나무의 꽃이 지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생기는 것.

〈한국어기초사전〉

열매'

발음 [열매 ㄹ매]

관람 이력

「명사」

식물이 수정한 후 씨방이 자라서 생기는 것. 대개는 이 속에 씨가 들어 있다. 녹과실, 과자.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기초사전>에서는 ‘열매’를 “사과, 배 등과 같이 나무의 꽃이 지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생기는 것.”으로 뜻풀이하였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식물이 수정한 후 씨방이 자라서 생기는 것. 대개는 이 속에 씨가 들어 있다.”로 풀이하였다. 한눈에 보아도 <한국어기초사전>이 훨씬 쉬운 단어로 뜻풀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전문 용어인 ‘씨방’이나 ‘수정’은 어려운 어휘이다. <한국어기초사전>에는 전문 용어인 ‘씨방’이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다. 뜻풀이는 해당 사전에 등재된 어휘로만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5만여 개의 표제어를 담은 <한국어기초사전>과 50만 개가 넘는 표제어가 수록된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 속 어휘는 다를 수밖에 없으나 특히 <한국어기초사전>은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가능한 한 쉬운 어휘로 뜻을 풀이한 것이 특징이다.

둘째, <한국어기초사전>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예문을 제시하였다. 모든 표제어에 예문을 제시하였으며 구, 문장 예문은 기본이고 대부분의 표제어에 대화 예문까지 제시하였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다양하고 풍부한 구, 문장, 대화 예문을 보고 어휘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대화 예문을 통해 해당 어휘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학습자들이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다양한 예문은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에게도 유용하다.

모호하다 (模糊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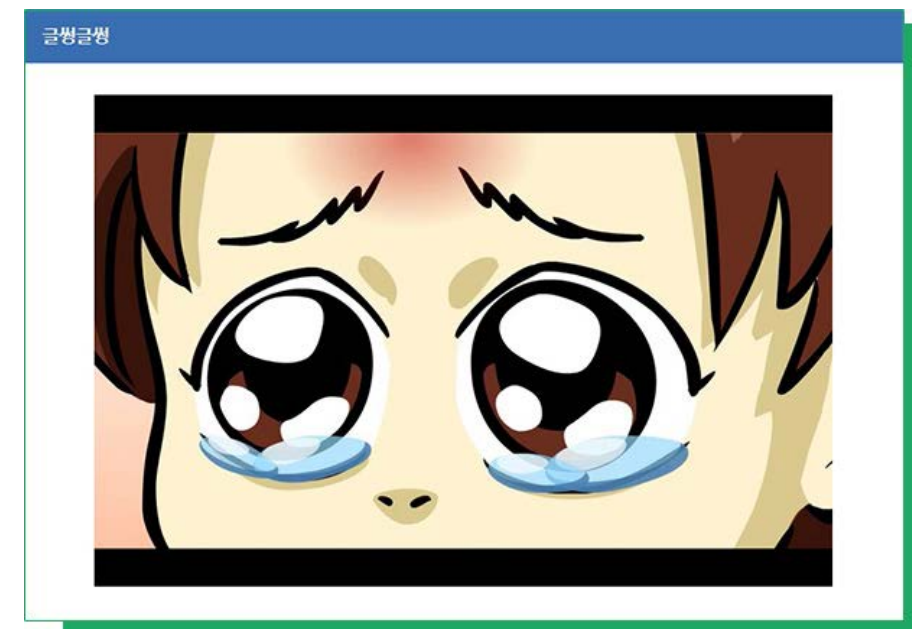
발음 [모호하다]

활용 모호한[모호한], 모호하여[모호하여] (모호해[모호해]), 모호하니[모호하니], 모호합니다[모호합니다]

품사 「형용사」

어떤 말이나 태도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 모호한 설명.
- 모호한 태도.
- 모호하게 얼버무리다.
- 경계가 모호하다.
- 문장이 모호하다.
- 의미가 모호하다.
- 정체가 모호하다.
- 심사위원들은 모호한 심사 기준을 좀 더 정확하게 고쳐서 판정 시비를 줄이려 했다.
- 소식을 전해 들은 민준의 표정이 모호해서 웃는지 우는지 알 수가 없다.
- 가: 저 친구의 대답이 참 모호하네.
- 나: 그렇게. 알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 다중 매체 정보 제공(글썽글썽)

셋째, <한국어기초사전>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정보와 다중 매체 정보(그림, 사진, 동영상, 발음 등)를 실었다. 발음 정보, 활용 정보는 물론 한국어 수준별 어휘를 별(★)로 표시하여 초·중·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어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림, 사진, 동영상 자료 등 다중 매체 정보는 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를 학습자들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한국어기초사전>은 한국어 학습 수요가 많은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타이어, 프랑스어 등 11개 언어로 번역하였다. 이것이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화 웹 사전인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학습사전(이하 ‘한-외학습사전’)>이다. 학습자의 언어와 문화를 반영하여 뜻풀이한 <한-외학습사전>은 2016년에 중국어를 제외한 10개 언어를 먼저 개통하였으며 2020년 5월 <한국어-중국어학습사전>도 개통하였다. <한-외학습사전>은 개통 후 연간 사용자가 45만 명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397만여 명이 이용하였다.

있다 ★★

어휘 등급 정보

발음 [있다]

활용 있어[이써], 있으니[이쓰니], 있는[인는]

품사 「동사」

발음, 활용, 품사 정보

1.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않고 머물다.

- 나는 서울에 일 년 동안 있었다.
- 그는 방학 내내 계속 집에만 있다고 했다.
- 엄마는 "엄마 시장 다녀올 테니 잠깐만 혼자 있어"하고 밖에 나가셨다.
- 가: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골짜기 말고 있어!
- 나: 알았어요.
- 가: 같이 가시죠?
- 나: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문형 1이 2에 있다

높임말 정보

높임말 계시다

▲ 다양한 학습 정보 제공

한국어-베트남어 학습사전

Hãy nhập từ tìm kiếm bằng tiếng Hàn hoặc tiếng Việt

↓ Tải về 가 가

친구 (親舊) ★★★

Phát âm [친구]

Từ loại 「명사」 Danh từ

1. bạn

사이가 가까워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
Người có quan hệ gần gũi và chơi thân với nhau.

▲ <한국어-베트남어학습사전> ‘친구’ 검색 화면



▲ <한국어-아랍어학습사전> '친구' 검색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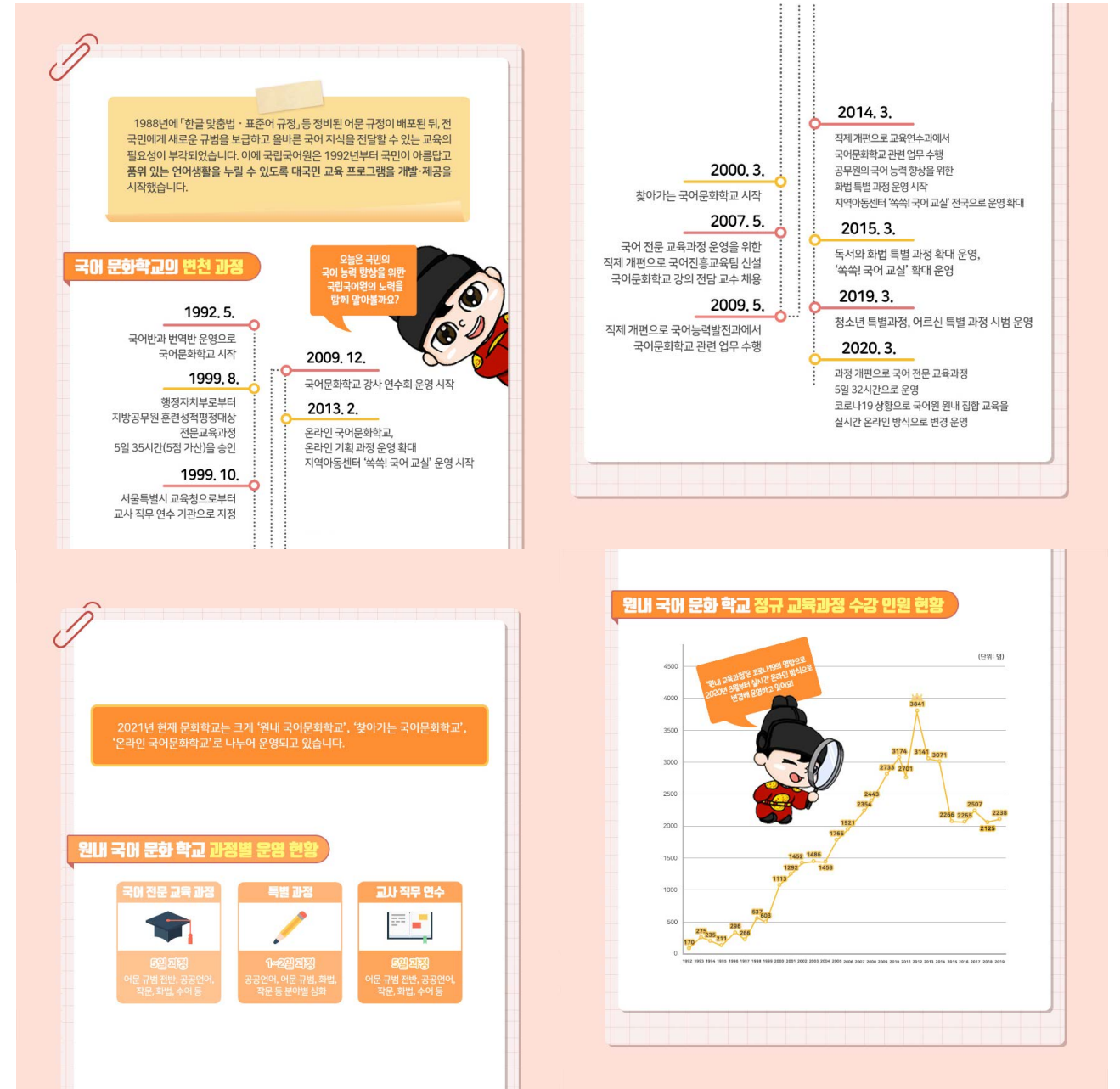
<한-외학습사전>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서비스된다. 올해 7월에는 태국 유명 포털인 '사눅(SANOOK)'에서 <국립국어원 한국어-타이어학습사전>를, 11월에는 네이버 관계사인 라인(일본)에서 <국립국어원 한국어-일본어학습사전> 검색 기능을 서비스하기 시작하였다.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과 <한국어-외국어학습사전>은 변화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더 많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더 쉽게 사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다



우리가 매일 쓰는 우리 말글, 더 잘 알고 싶다면 국립국어원과 함께 공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민의 연령, 직업 등에 따라 그에 맞는 국어 교육 과정과 학습 자료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립국어원의 노력을 함께 알아볼까요?



원내 국어문화학교

서울 방화동에 있는 국립국어원 청사에서 수강할 수 있는
원내 국어문화학교에서는 어문 규범 과목뿐만 아니라
'공공언어의 이해'·'보도자료의 이해와 실제' 등
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과목과 '수어의
이해'·'장애인청음의 이해'·'통일 시대의 국어'·'공감과
협력의 의사소통' 등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기초 소양 과목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국립국어원에서 집합 교육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전국 각지에서 늘어나는 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서 2000년부터 운영을 시작
했습니다. 기관에서 수강생이 10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국어 전문 강사가 신청 기관에 찾아가서 강의하는
기관 맞춤형 방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원내 국어문화학교에서 운영되는
모든 과목이 신청 대상이며 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어요!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강좌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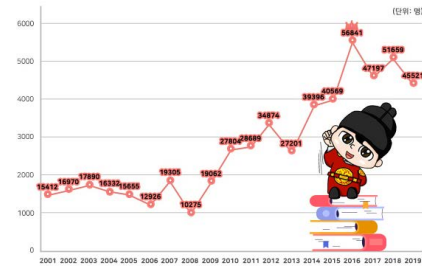
번호	강좌명	번호	강좌명
1	한글 맞춤법	11	언어폭력 개선을 위한 올바른 말하기
2	공문서 바로 쓰기	12	공공언어 바로 쓰기
3	우리말 다듬기	13	표준 언어 애칭
4	표준어 규정	14	통보기로 들여다 본 나라의 언어
5	외래어 표기법	15	교과서와 함께 하는 어문규정
6	로마자 표기법	16	소통과 공감에 있는 글거울 말하기
7	구별해야 할 어휘	17	미래를 여는 소통, 독서
8	혼인성음의 관계	18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남한 생활 표현 익히기
9	띄어쓰기	19	국어책임관 길잡이
10	생활 속의 어문 규범	20-23	절차 학습 4종(한글, 수학, 음악, 과학)

그 밖에도 국립국어원 초·중·고·대·아르산·저소득층 아동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을 원하는 교육 기관에는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신청하세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수강 인원 현황



'온라인 국어문화학교'는 기존 국어문화학교의 집합 교육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어문화학교 강화를 온라인상에 구축하였습니다. 온라인
국어문화학교는 2008년에 '외국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식 개선과 국어
순화'와 '공문서 바로 쓰기'를 선보이며 시작했고, 2021년 11월 현재에는
총 27개 강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언어문화 관련 연구

시기	연구 과제명
2005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연구
2005	청소년 언어생활 실태 연구
2010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2011	청소년 언어 실태 언어 의사 전국 조사
2012	외래어 청소년 언어 어떻게 개선했어?
2012	청소년 수련 시설 및 초·중·고교용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2014	청소년의 건강한 대화 문화 확립을 위한 지도 자료 개발
2015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연구를 위한 기초 조사
2016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연구
2017	언어를 통해 청소년의 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2017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설문 조사 및 향상 방안 연구
2018	청소년의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
2019	청소년 대상 언어문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2020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 강사 양성방안 연구

어르신 대상 교육 관련 연구

시기	연구 과제명
2018	어르신 대상 국어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적용 사업
2019	어르신 국어 문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2020	어르신 국어 문화 프로그램 강사 양성 방안 연구

저소득층 아동 지원 현황

시기	현황
2012년~2013년	'우리말 교실', '독해' 국어 교실' 강좌 시범 운영
2013년~2014년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독해' 국어 교실' 개발
2014년	'독해' 국어 교실' 강좌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2019년~	언어 소외 계층 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앞으로도 국립국어원은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자 애를 기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 30년사'와
'국어문화학교' 누리집(nedu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걸테크’는 ‘법률 정보 기술’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 이하 국어원)은 ‘리걸테크’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법률 정보 기술, 법률 정보 기술 서비스’를 선정했다.

‘리걸테크’는 각종 법률 서비스를 구현하는 정보 통신 기술이나 그런 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를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1월 17일(수)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리걸테크’의 대체어로 ‘법률 정보 기술, 법률 정보 기술 서비스’를 선정했다.

*새말모임: 어려운 외래 용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듬은 말을 제공하기 위해 국어 유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이에 대해 문체부는 11월 19일(금)부터 11월 24일(수)까지 국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3%가 ‘리걸테크’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리걸테크’를 ‘법률 정보 기술, 법률 정보 기술 서비스’로 바꾸는데 응답자의 97.3%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리걸테크’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률 정보 기술, 법률 정보 기술 서비스’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새말모임(11. 17.) 다듬은 말〉

대상어(원어)	다듬은 말	의미
리걸테크 (legaltech)	법률정보기술, 법률정보기술 서비스	각종 법률 서비스를 구현하는 정보통신기술, 또는 그런 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 변호사검색, 법률상담 신청, 법령 검색등을 구현 또는 서비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린포트폴리오 (green portfolio)	친환경 수익 전략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등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환경을 보존하는 사업 전략.

※ (참고) 코로나19 관련 쉬운 우리말 대체어

대상어(원어)	쉬운 우리말 대체어
팬데믹	(감염병) 세계적 유행
에피데믹	(감염병) 유행
글로벌 월	의료용 분리벽
언택트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엔데믹	(감염병) 주기적 유행
트윈데믹	감염병 동시 유행
플링 검사	취합 (선별) 검사
원도 스루 검진	투명창 검진
페이스 실드	얼굴가림막
스니즈 가드	침방울 가림막
지표 환자	첫 확진자
엔(n)차 감염	연쇄 감염, 연속 감염
드라이브스루 진료	승차 진료, 승차 검진, 차량 이동형 진료(또는 검진)
비말	침방울
진단 키트	진단 도구(모음), 진단 (도구) 꾸러미
의사 환자	의심 환자
트래블 버블	비격리 여행 구역, 여행 안전 구역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
코로나 레드	코로나 분노
코로나 블랙	코로나 절망
코로나 쇼크, 코로나19 쇼크	코로나 충격
부스터 샷, 부스터 샷	추가 접종
롱 코비드	코로나 감염 후유증

소강춘 전주대 교수(전 국립국어원장) 국립국어원에 개인 소장 자료 기증



소강춘 전주대학교 교수는 개인 연구 자료로 소장하고 있던 북한 관련 자료 554책을 올해 8월 국립국어원에 기증하였다. 이에 자료 기증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장소원 국립국어원장은 감사패 전달식을 2021년 12월 9일(목) 광화문 인근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기증 자료 중에는 대학용 교재로 사용된 '근세사'(교육성, 1949년) 및 '국어 교수법'(평양사범대학, 1972년)이 있으며, 이외에도 중학교·기술학교 학생들을 위한 글짓기 관련 도서인 '학생문장독본'(아동도서출판사, 1964년)을 포함하고 있다. 기증 자료는 북한 언어 연구와 문화 이해를 위한 자료로써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국립국어원 사업을 위한 연구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기증 안내)

국립국어원 자료실에서는 우리 원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국어 관련 자료에 대해 기증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기증 자료는 자료 기증절차에 따라 자료 등록 및 보존·관리가 되며, 후학들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증 문의: ☎ 02-2669-9758]

감염병 세계적 유행으로 달라진 우리의 일상



우리말 다듬기

#플랜테리어_대신_식물 인테리어 #홈 페니스_대신_집 꾸미기

사람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식물 인테리어와 같은 **집 꾸미기**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우리말 다듬기

#온택트_대신_영상 대면, 화상 대면 #데스크테리어_대신_책상 꾸미기

재택 근무와 **화상 대면** 회의 등이 잦아지면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책상 꾸미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우리말 다듬기

#오티티_대신_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이제는 최신 영화를 극장이 아니라
방에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로 감상하지요.

우리말 다듬기

#앤데미_대신_주기적 유행 #코로나 블루_대신_코로나 우울

코로나19가 **주기적 유행** 상황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우리말 다듬기

감염병 세계적 유행으로 달라진 우리의 일상

#팬데믹_대신_(감염병) 세계적 유행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우리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엔(n)차 감염_대신_연쇄 감염

감염병 세계적 유행과 **연쇄 감염**을 막고자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느새 익숙해졌어요.

우리말 다듬기

#위드 코로나 시대_대신_단계적 일상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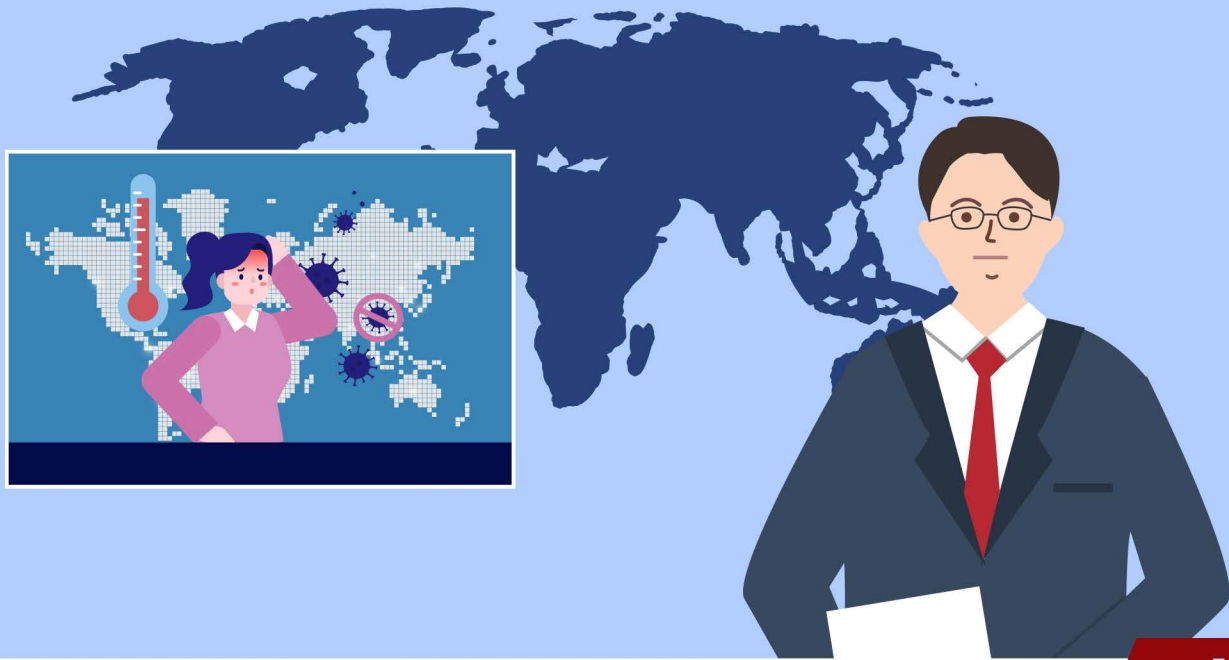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산책과 운동으로
건강을 챙긴다면 **단계적 일상 회복**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말 다듬기

오늘의 다듬은 말

- #팬데미 ▶ (감염병) 세계적 유행
- #엔(n)차 감염 ▶ 연쇄 감염, 연속 감염
- #데스크테리어 ▶ 책상 꾸미기
- #홈 페니스 ▶ 집 꾸미기
- #플랜테리어 ▶ 식물 인테리어
- #오티티(OTT, Over The Top) ▶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 #앤데미 ▶ (감염병) 주기적 유행
- #코로나 블루 ▶ 코로나 우울
- #위드 코로나 시대 ▶ 단계적 일상 회복, 코로나 일상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그 후 2년



속보

우리말 다듬기 국립국어원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그 후 2년

#지표 환자_대신_첫 확진자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우리말 다듬기 국립국어원

#비밀_대신_침방울

코로나19는 감염자와의 신체 접촉 없이 미세한 **침방울**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서 감염률이 특히 높아요.

우리말 다듬기 국립국어원

#페이스 실드_대신_얼굴 가림막
#원도 스루 검진_대신_투명창 검진
#글로벌 월_대신_의료용 분리벽

우리나라는 방역과 검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의료진들은 **얼굴 가림막** 등을 착용하고
의료용 분리벽을 사이에 두고 **투명창 검진**을 하고요.

우리말 다듬기 국립국어원

#드라이브스루_대신_승차 진료, 승차 검진

승차 진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선보인 진료 방식이에요.
진료 중 감염 위험과 검사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세계의 찬사를 받기도 했지요.

우리말 다듬기 국립국어원

#엔데믹_대신_(감염병) 주기적 유행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는
환기와 소독을 자주하는 등 감염병 **주기적 유행**을 막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말 다듬기 국립국어원

#팬데믹_대신_(감염병) 세계적 유행
#변이종 증후군_대신_탈진 증후군

하지만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탈진 증후군을 호소하는 의료진이 늘고 있다고 해요.

우리말 다듬기 국립국어원

#부스터 샷_대신_추가 접종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고 **추가 접종**률도 높아지고 있으니
곧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기로 해요!

우리말 다듬기 국립국어원

오늘의 다듬은 말

- 지표 환자 → 첫 확진자
- 비밀 → 침방울
- 페이스 실드 → 얼굴 가림막
- 글로벌 월 → 의료용 분리벽
- 원도 스루 검진 → 투명창 검진
- 드라이브스루 → 승차 진료, 승차 검진
- 엔데믹 → (감염병) 주기적 유행
- 팬데믹 → (감염병) 세계적 유행
- 변이종 증후군 → 탈진 증후군
- 부스터 샷 → 추가 접종

100년 전 해외에서 발행된 한글 신문



글: 안예리(한국학중앙연구원 부교수)

‘디아스포라(Diaspora)’는 자의로든 타의로든 본래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고유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민족 집단을 이르는 말이다. 디아스포라가 일반적인 이주 공동체와 구별되는 점은 이들이 현지 사회 집단과 분리되어 고립된 생활 공간을 이루고 있으며, 떠나온 땅을 찾아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강하게 단결하는 민족 공동체라는 점이다.

한국인들의 집단적 해외 이주가 시작된 20세기 초부터 세계 곳곳에 한국어 디아스포라가 생겨났다. 그 전에도 한반도를 떠나 해외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국가가 인정하는 정식 이민은 1903년 하와이 노동 이민에서 시작되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인부로 일하기 위해 이민선에 오른 이들은 모두 대한제국 수민원*에서 발급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수민원(綏民院): 대한제국 때에, 궁내부에 속하여 외국 여행에 대한 사무를 맡아보던 부서.

광무 6년(1902)에 두었다.



▲ <그림 1> 국한 혼용문과 영문으로 작성된 대한제국 해외여행장(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소장): 안재창(安載昌)의 여권으로 목적지는 미국 포와도(布哇島, 하와이를 뜻함), 여행 목적은 농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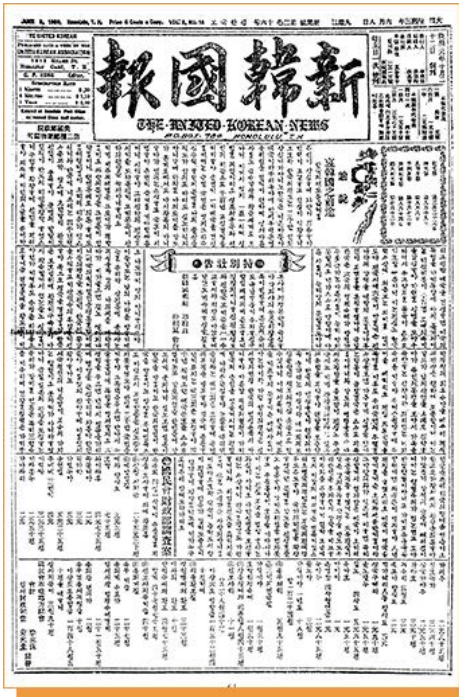
1903년부터 1905년까지 7천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하와이로 노동 이민을 떠났다. 하와이 곳곳의 농장에 흩어져 고된 노동에 종사하던 이들 중 일부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더 좋은 일자리나 교육의 기회를 찾아 미국 본토로 건너가거나 하와이에 남아 세탁소, 양복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해외의 한인들은 국내외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초기에 노동 이민을 떠난 한인 중에는 영어 등 현지어에 능통한 사람이 거의 없었고 한문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도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한인 사회의 출판물은 대부분 한글로 발행되었다.



▲ <그림 2>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된 『공림신보』(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일부 제목과 본문 내 숫자 표기에만 한자가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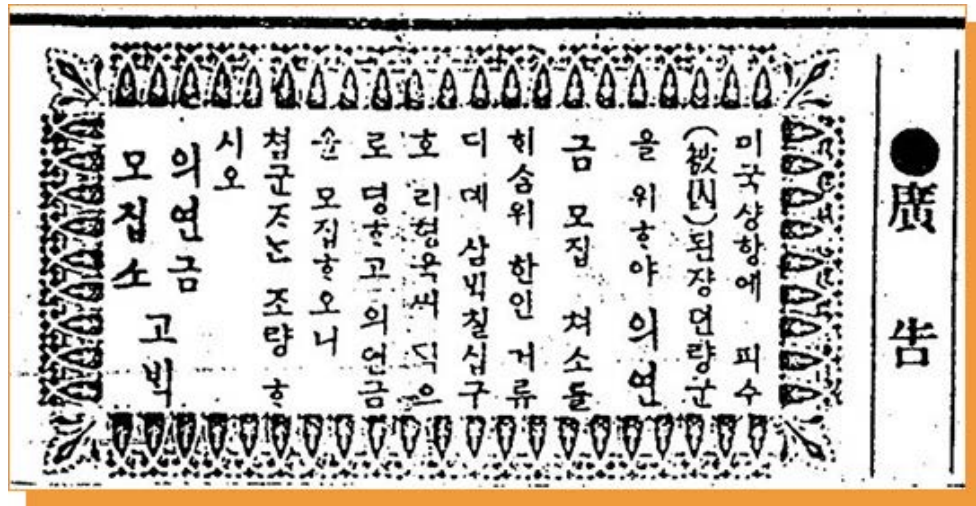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5년에 창간된 『공립신보』와 그 후신인 『신한민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909년에 창간된 『신한국보』와 그 후신인 『국민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각각 1908년과 1912년에 창간된 『해조신문』과 『권업신문』 등 20세기 초 해외에서 발행된 한글 신문은 한국어 디아스포라의 중심점 역할을 했다.



▲ <그림 3>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발행된 『신한국보』(독립기념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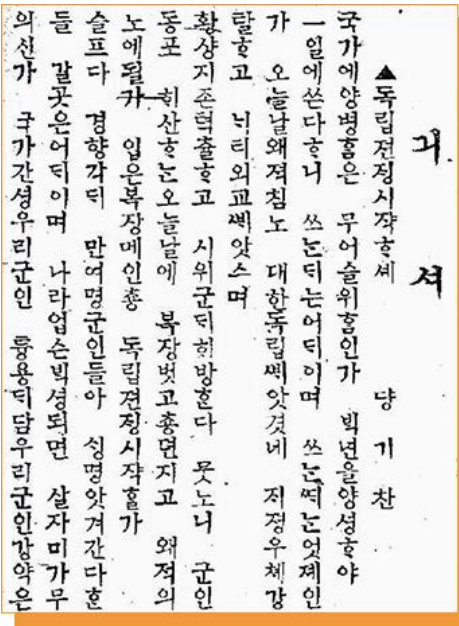


▲ <그림 4>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행된 『해조신문』(독립기념관 소장)



▲ <그림 5> 『해조신문』(1908.4.26.)의연금 모집 광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환과 전명운이 친일 외교관 스티븐스를 처단한 뒤 감옥에 갇히자 러시아 한인 사회에서 이들을 돕기 위해 의연금 모집 광고를 냈다.

해외에서 발행된 한국어 신문들은 현지 교민들에게 필요한 소식들을 전해 주었을 뿐 아니라 국내와 해외 현지, 그리고 해외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인 사회를 서로 연결해 주었다. 특히 일제의 탄압으로 국내 신문들이 정간 혹은 폐간되는 일이 많아진 상황에서 이들 신문은 국내의 언론이 담당하지 못하는 역할을 대신해 주었다. 검열로부터 자유로운 해외 한국어 신문들은 일제의 만행을 비판하고 독립 의식을 고취하는 기사들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였고 국내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독립운동에 관한 소식을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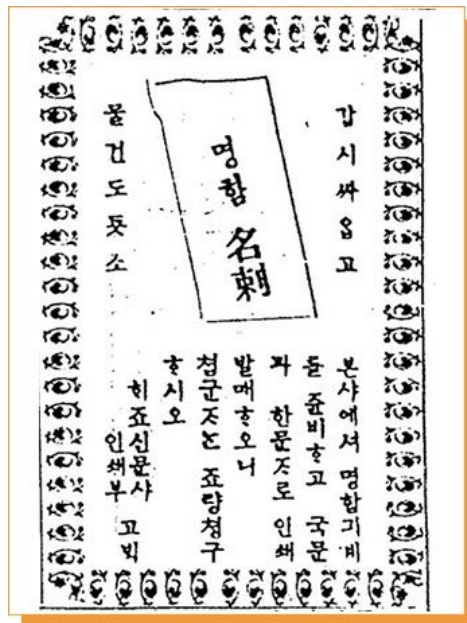


▲ <그림 6> 「독립전쟁 시작하세」, 『공립신보』(1907. 8. 9.): 무장 투쟁을 주창하는 기사



▲ <그림 7> 「한국 독립군과 독립당 용감」, 『신한민보』(1920. 7. 8.): 일제에 맞서 싸운 한국 독립군을 치하하는 기사

한편 이들 신문은 국내 신문들과 마찬가지로 광고란을 두었는데, 각종 상점·투자금 모집·야학 운영·한국 식품 및 서적 수입·한국형 선박의 출항 시간 등 광고의 내용을 통해 20세기 초 해외 한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외국어 교육과 해외여행이 일반화되고 인터넷을 통해 세계 곳곳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오늘날에도 해외에서의 생활은 시행착오의 연속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평생 고향 땅을 벗어난 적조차 거의 없었던 100년 전 한국인들이 이역만리에서 낯선 풍토와 문화를 경험하며 겪었을 고초는 실로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고된 노동을 이어갔던 이들은 틈틈이 한글 신문을 읽으며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었고 고국의 정세와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며 앞날에 대한 방책을 세웠다. 100년 전 해외에서 발행된 한글 신문들은 이주 한인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한국어 디아스포라들을 이어 주며 독립운동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국어능력을 높이겠습니다.

국립국어원 장소원 원장



I 문장을 넘어서 텍스트로 한국어 연구의 범위를 넓히다

《썰표, 마침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장소원

안녕하세요. 장소원입니다. 앞으로 3년간 국립국어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국립국어원장으로서 독자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썰표, 마침표.》

원장님께서 국어학계에서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거두시며 활발하게 연구를 이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두고 연구해 오신 분야는 무엇인지요?

장소원

굳이 분야를 구분해서 말하자면 텍스트 언어학을 주로 연구했습니다. 기존의 문법론은 문장 단위에 한정해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텍스트 언어학은 문장보다 더 큰 단위인 ‘텍스트’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우리의 언어생활은 실제로 다양한 문장들의 결합으로 실현되는데 이런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 즉 글을 이룹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목적으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 뉴스 텍스트, 방송 언어 텍스트, 광고 텍스트, 법률 텍스트 등 매우 다양한 텍스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텍스트마다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썰표, 마침표.》

서울대학교는 국어국문학으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파리 제5대학에서는 언어학으로 박사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프랑스 유학을 결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장소원

지금은 문법책과 국어학 논문에서 문어와 구어를 구별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어학에서는 문어와 구어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았고 각각의 특징이 정리되어 있지도 않았습니. 문어를 대상으로 한 문법책이 전부였고, 가끔씩 문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어미나 조사 등의 문법현상을 예외로 지적하는 정도였지요. 제 석사 논문이 「문법 기술에 있어서의 문어체 연구」 인데 문어체에서 쓰이는 종결 어미가 구어체의 어미들과 어떻게 다른지, 나름의 체계를 세워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어와 구어의 차이가 종결 어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문어에서는 “나는 커피와 과자를 먹는다.”라고 하는데, 구어에서는 대개 “나는 커피랑 과자를 먹는다.” 또는 “나는 커피하고 과자를 먹는다.”라고 합니다. 조사 사용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텍스트 차원으로 넘어가면 그 차이가 훨씬 다양하고 복잡해지겠지요. 이런 문어와 구어의 차이를 더 깊이 연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우연히 서점에서 한 프랑스 언어학자가 쓴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프랑스어는 구어와 문어 차이가 크고,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공부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유학을 가게 된 것입니다.

I 한국어 열풍이 유행으로 그치지 않도록

《썰표, 마침표.》

30여 년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 재직하시면서 다양한 저서를 출간하셨습니다.

장소원

1992년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임용되고는 근 10년간 대학 교재 집필에 열중했습니다. 10권이 넘는 교재들을 선배, 동료 교수님과 함께 집필했는데 지금의 방송대 교육과정의 틀을 잡는 데 일조를 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2002년에 서울대학교로 자리를 옮기면서는 제가 그동안 연구해 온 텍스트 언어학을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여러 권의 책을 내었습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론>>, <<방송 글쓰기>>, <<우리 시대의 문체>>, <<뉴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책을 꼽을 수 있겠네요. 문체부와 국립국어원과도 여러 연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런 말실수 저런 글실수>>, <<보도 가치를 높이는 TV 뉴스 문장 쓰기>>, <<YTN 뉴스로 배우는 시사 한국어>> 등이 그 결과물입니다.



《썰표, 마침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겐 생소한 <<폴란드인을 위한 한국어>>라는 책도 집필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쓰시게 된 건가요?

장소원

2010년쯤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해외 한국학 진흥 사업으로 한국학과가 신설되는 외국 대학의 교재를 만들어 주는 연구 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 때마침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폴란드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러 온 제자가 있어 함께 연구하면서 <<폴란드인을 위한 한국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2년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센터 소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 한국어센터의 선생님들이 앞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은/는’과 ‘이/가’를 알아서 척척 구분해서 쓰지만 한국어와 관련한 언어 직관이 없는 외국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어를 모국어로 국어학 연구를 하는 것과 외국인에게 가르치기 위해 한국어 연구를 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문법론을 새로운 각도에서 공부하게 됐고, 국어학 연구를 좀 더 치밀하게 접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썰표, 마침표.》

요즘 정말 한국어의 인기가 높은데요.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한국어의 위상은 어떠한가요?

장소원

제가 굳이 말을 엿지 않아도 지금 한국어의 인기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지점은 한류와는 관계없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몇 년 전 스페인의 한 대학 수업에 초청을 받아서 한류 콘텐츠로 배우는 한국어 동영상을 틈이 있었는데 한 학생이 왜 노래로 한국어를 배워야 하냐고 물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한류 열풍이 강하니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한국 대중가요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한국어라는 나라가 궁금해서 한국 문학이나 한국어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외국인도 꽤 많이 늘어났고, 이런 변화야말로 진정한 위상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썰표, 마침표.》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어가 세계 언어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국립국어원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장소원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에 관한 세계의 관심이 한때 열풍으로 그치지 않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질의 교육 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어 학습을 위한 웹 사전 운영,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와 교원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역이나 학습 목적에 상관없이 범용 교재 하나로 한국어를 공부했지만 지금은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 교재를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목적이나 학습 수준에 맞춰 한국어 교재를 선택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수학습샘터’에 들어오시면 그동안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육 자료를 만나 볼 수 있고, 또 연구자나 교사들끼리 정보도 나눌 수 있습니다. 현지 대학에서 한국어학이나 한국 문학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현지인 한국어 교원이 많아짐에 따라 국립국어원은 현지 한국어 교원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는 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카자흐스탄 알마티과학기술협회의 한글학교에서 수업 중인 예비 교원

I 소통하는 언어, 평등한 언어, 경쟁력을 갖춘 언어의 미래

《심표, 마침표.》

원장님께서 방언언어특별위원회에서 위원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최근 각종 매체들에서 신조어나 어려운 외래어들을 그대로 노출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구성원 간 소통을 저해하고 있는 데요. 원장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지요.

장소원

언어는 계속 변화합니다. 언어가 고정된 모습으로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겠죠. 세상이 바빠지고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신조어가 더 자주, 더 많이 생겨나고 사람들은 가능한 한 경제적으로 말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신조어나 줄임말이 넘쳐나면서 세대 간 소통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원인을 젊은 세대에겐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기성세대도 신조어나 줄임말을 많이 써 왔고,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도 젊은 세대 못지않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정보통신 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국제적인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신조어나 외래어가 급속히 번지다 보니 지금의 언어 현상이 눈에 띄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반성하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도 새로운 말이 나오는데 한 번 정도 그 의미를 풀어 설명하고 나면 계속 줄인 말, 외국말을 사용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젊은 세대, 기성세대 모두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언어 정책적으로는 새로 유입되는 외래어를 발 빠르게 추적해서 되도록 쉬운 우리말 용어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고, 신조어나 줄임말은 써도 되는 자리와 쓰면 안 되는 자리를 구분하는 등 언어 교육이나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 국민이 자연스럽게 옥석을 가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용어만 보더라도 ‘코호트 격리, 부스터샷, 코로나 블루, 팬데믹, 트래블 버블’ 등등 국민 다수가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들이 마구 사용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무엇보다 쉽고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쉬운 말 쓰기’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표, 마침표.》

국립국어원 누리집 인사말에서 “장애, 가난, 이민 등의 이유로 한국어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장소원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장애인을 위한 언어 소통 지원 사업을 통해 누구에게나 평등한 언어로 다가가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취업, 결혼 등 한국 사회에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제1언어는 외국어인데 필요에 따라 생애 중간에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언어 지원을 꾸준히 해야 하는 건 국가 기관으로서 국립국어원의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원

또 국립국어원은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의 언어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언어진흥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어 관련 사업으로는 자연스러운 한국 수어를 수집하기 위한 ‘수어 말뭉치 구축’, 한국수어를 한국어로 풀이하는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 한국수어 교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한국수어 교원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수어 통역 지원’ 등의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관련 정례 발표 때 실시간으로 수어 통역을 제공함으로써 농인의 알 권리와 언어권 보장에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점자 규정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한글 점자뿐만 아니라 수학·과학·컴퓨터·음악 점자 등에 대한 규정도 보완해 시각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학습 공간에서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 사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진 출처: 연합뉴스

《심표, 마침표.》

국립국어원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기술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말뭉치 구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언어 정보화와 말뭉치 사업 방향에 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소원

국립국어원은 언어 처리 기술의 씨앗이 되는 대규모 국어 말뭉치(빅데이터)를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변화하는 언어를 관찰할 수 있고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기본 말뭉치와 다양한 심층 분석 말뭉치를 구축하여, 산업계 및 학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모두의 말뭉치’라는 사이트에 그동안 구축해 놓은 말뭉치들을 일반에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 임기 중에 <표준국어대사전>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인데, 여기에도 말뭉치는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표제어, 예문, 뜻갈래, 관련어 등등 사전에 실리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하려면 거대 언어 자료인 말뭉치가 꼭 필요하지요.



《심표, 마침표.》

앞으로 국립국어원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원장님께서서는 국립국어원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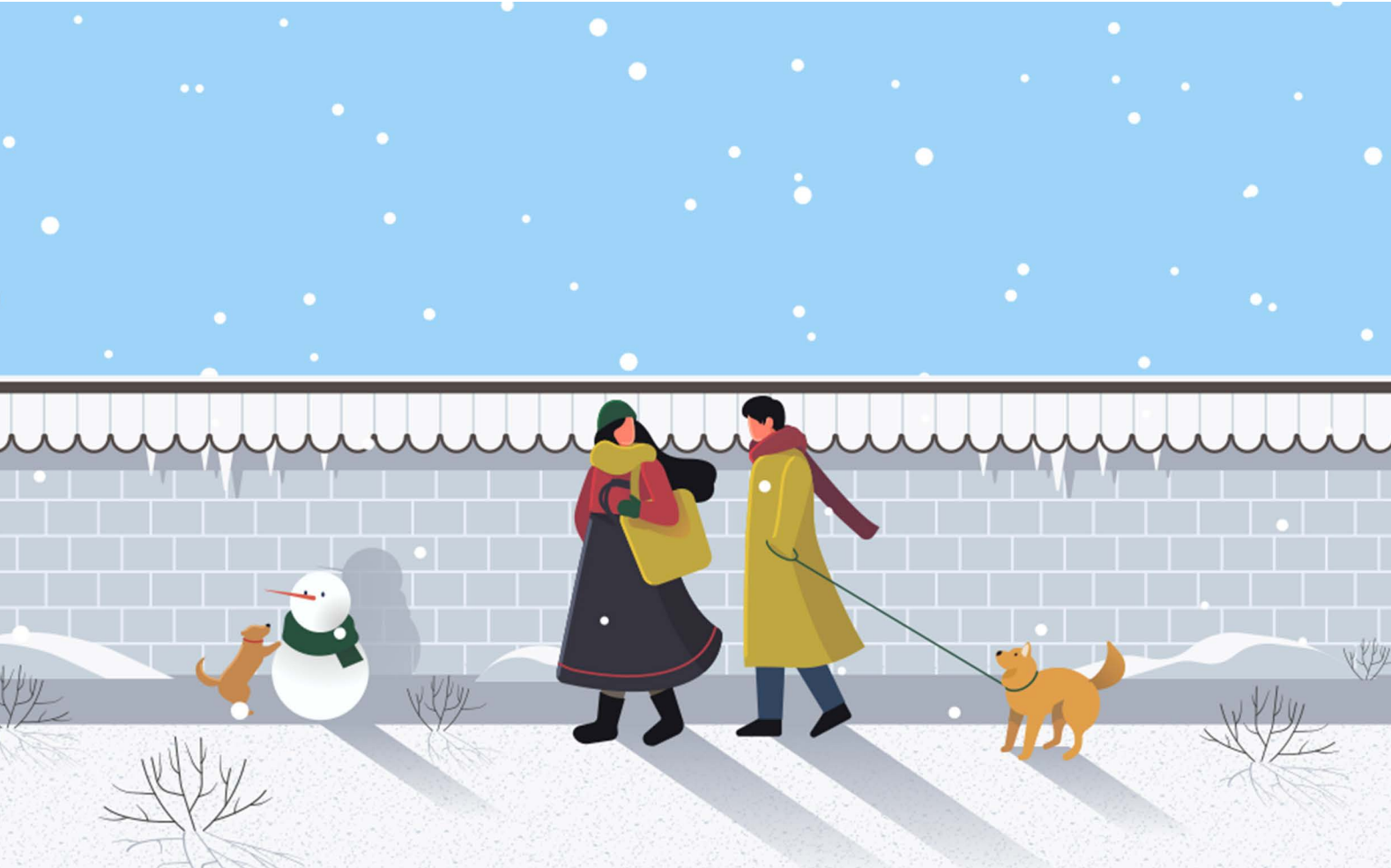
장소원

우리 국민의 국어 능력을 키우는 일에 힘을 쏟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국어 능력 수준을 조사해보면 고등학생 때까지는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30대가 되면 평균 수준에 머무르다가, 50대~60대가 되면 평균 이하로 떨어집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은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품격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립국어원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표, 마침표.> 독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립국어원의 사업들을 대외에 좀 더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2020 세계한국어대회의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주최 기관인 국립국어원과 손발을 맞춰 보고, 이 외에도 다양한 국어 관련 연구를 국립국어원과 진행하며 국립국어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립국어원장이 되어 내부의 연구 결과와 업무 보고를 받아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국립국어원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전 편찬, 국어 교재 개발, 교원 양성 등 국민의 언어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과 어문규범 관리, 맞춤법 정비 등 편리한 국어 생활을 위한 사업, 말뭉치 구축 등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해 언어 자원을 구축하는 사업 등 국립국어원이 하는 일을 널리 알려서, 국립국어원이 국민의 언어생활을 지원하고 언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임을 누구나 인지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글: 고승희
사진: 김영길

우리말 풀기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에요.
한 해 동안 <<쉽표, 마침표.>>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문제 1

‘드리다’는 ‘주다’의 □□□로 쓰일 때,
윗사람에게 말·인사·부탁·약속·축하 등을 할 때,
신에게 비는 일을 할 때 씁니다.

단서 실전 국어 표기법

문제 2

문체부는 ‘□□ □□□ □□ □□’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단서 국어원 소식

문제 3

재택 근무와 □□ □□회의 등이 잦아지면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책상 꾸미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단서 우리말 다듬기

문제 4

1908년과 1912년에 창간된 『해조신문』과 『권업신문』 등
20세기 초 해외에서 발행된 한글 신문은
한국어 디아스포라의 □□□역할을 했다

단서 100년 전 우리말 풍경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 참여하기” 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응모 기간

2021. 12. 7.~2021. 12. 21.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심표, 마침표.》 2021년 1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는 음료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호 우리말 달인 당첨자

박*성(7268) 김*운(6209) 정*욱(2012) 문*남(1545)
최*주(3591)정*록(4331) 정*아(0088) 박*미(4736)
박*희(5022) 유*정(5748)

우리말 풀기



한 해 동안 <<쉽표, 마침표.>>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쉽표, 마침표.>>도 재미있게 읽으시고,
‘우리말 풀기’도 잊지 말고 참여해 주세요.

문제 1

‘앉히다’는 ‘앉다’의 □□□로 쓰일 때,
무엇을 올려놓거나 설치할 때,
버릇을 가르칠 때 씁니다.

단서 실전 국어 표기법

문제 2

종일 놀랐던 마음이 비로소 진정되는 느낌이 들었다.
□□이란 누군가가 그저 그 사람의 처지에서 말해 주는 것이다.

단서 읽기 좋은 글, 듣기 좋은 말

문제 3

그림, 사진, 동영상 자료 등 다중 매체 정보는
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를
학습자들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단서 사전 두 배로 즐기기

문제 4

이외에도 중학교, 기술학교 학생들을 위한
글짓기 관련 도서인 ‘□□□□□□’을 포함하고 있다.

단서 국어원 소식

문제 5

□□□□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선보인 진료 방식이에요.
진료 중 감염 위험과 검사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세계의 찬사를 받기도 했지요.

단서 우리말 다듬기

문제 6

제 석사 논문이 「문법 기술에 있어서의 문어체 연구」인데
문어체에서 쓰이는 □□□□가 구어체의 어미들과 어떻게 다른지,
나름의 체계를 세워 본 것이었습니다.

단서 우리말, 그리고 사람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응모 기간

2021. 12. 21.~2022. 1. 10.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심표, 마침표.》 2022년 1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는 음료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호 우리말 달인 당첨자

박*성(7268) 김*운(6209) 정*욱(2012) 문*남(1545)
최*주(3591) 정*록(4331) 정*아(0088) 박*미(4736)
박*희(5022) 유*정(5748)